

# 대를 이어 '넓음과 활짝 펴' 을 쫓는다



박영사는 작년에 회사 설립 50주년을 기념으로 <박영사 50주년사>를 발간했다. 부침이 극심한 출판계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술서 출판에 전념해 온 박영사의 자취를 기리고 싶었다는 게 안종만 회장(56)의 생각이었다. 박영사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학술분야 도서출간에 전력을 다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술전문 출판사로 손꼽힌다.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친인 안원옥 회장께서 처음에 문학도서로 출발했다가 좌절을 맞본 후 인문 및 사회과학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죠. 그리고 법학서와 경제경영학서 전문의 학술출판사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광복 직후 피난지 부산에서 출판활동을 하다가 1953년에 종로구 견지동에서 본격적인 출판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6개월이 멀다 하고 출판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의 평동에 자리를 마련했죠. 지금까지 낸 책은 5,000여 종에 이릅니다.”

박영사가 출판계의 음지라고 볼 수 있는 학술출판을 계속해 온 이유는 출판을 통해서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박영사는 처음 시작할 때의 '대중문화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박영사'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기도 했다.

“박영사의 '박博'은 막힘이나 거스름 없이 탁 트인 넓음을 의미하고, '영英'은 문화의 활짝 펴를 상징합니다.”

박영사의 주요 출판종목은 법서와 경영서다. 특히 이런 분야의 경우에는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일반 대중서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더구나 요즘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에는 매출이 더 하락하게 되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박영사는 나름의 특화된 도서들을 완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독자층을 확보해 보기 위해 '대학전서'라는 부제로 책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상식의 나열도 아니고 깊이에만 치우치지도 않는 종합성을 두루 갖추고 싶었죠. 그리고 보다 세련미가 돋보이는 표지장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표지에다 대학전서 부제로 통일성을 주면서 서가 어디에 꽂아놓아도 박영사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영사의 편집직원 11명은 각 분야의 전문필진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법률학부터 시작해서 사회학까지 당대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각 분야의 권위자들의 신뢰감 있는 원고를 책으로 묶은 것이 판매부수를 늘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학술서는 특정 분야의 전공자만 책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독서시장이 협소한 데다가 대부분 교수가 저술가이기 때문에 모두들 꼼꼼하게 저작을 만들어 내려고들 합니다. 탈고할 때까지 무한정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지금까지 박영사의 큰 자랑거리가 된 책은 민법의 권위자인곽윤직 교수가 쓴 《민법주해》(전 25권)와 편찬 작업자만도 300여 명이 넘었던 《경제학대사전》이다. 특히 《경제학대사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이바지한 면도 크고, 학파간의 교류에 물꼬를 터주었다는 업적을 갖고 있다. 안종만 회장은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책보다는 해당 전공자 및 실무자들에게 필독서가 될 책, 수험생의 필독서, 변화하는 시대를 걷는 가이드북이 될 경제·경영서에 초점을 두고 출판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법서의 경우 새 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운 책을 완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출판활동을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담아 출판활동을 계속해나가고 싶다는 게 그의 뜻이다. **김**

취재 김청연 기자